

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4월 26일(월) 10:30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위원장제안)

(10시56분 개회)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3차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등록된 도시발전연구회,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위원장제안)

(10시58분)

○위원장 조영명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발전연구회,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연구회를 대표하여 김경수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위원 김경수 반갑습니다.

도시발전연구회 김경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용역 과제명은 '창원시 도시 발전방안 연구'이며, 소요 정책개발비는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한지 10년이 지났고, 내년에는 특례시로 지정됨에 따라 이 시점에서 지난 10년 동안 지역 간 갈등이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창원시민은 통합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통합 후의 인센티브는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5개 구별로 읍·면·동의 수와 인구수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체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창원시의 인센티브 지원가능성과 지역별 발전방안을 살펴보고, 어떤 지역에 어떤 산업의 유치나 발전으로 미래 먹거리를 제고할 수 있는지, 창원시의 도시 발전방안을 연구하고자 이번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용역 과제명은 ‘창원시 문화환경 정주여건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이며, 소요 정책개발비는 1,980만원입니다.

현재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환경 부분에 중점을 두어 창원시가 지닌 독창적인 문화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나아가 창원시의 문화적 도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발전방안을 연구하고자 이번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정책연구과제 및 의원 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를 대표하여 권성현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 대표위원 권성현 반갑습니다.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 권성현 의원입니다.

조영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명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 체험형 관광사업 연구’이며, 정책개발비는 1,996만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관광환경이 소규모, 치유형, 근교 중심으로 크게 변화되고 이에 안전과 동시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체험을 통해 농어촌의 일상과 마을 문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관광유형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체험형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어촌 관광 성공사례가 생기면서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회는 마을이나 지역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 관광 프로세스를 발굴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책용역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체험 위주의 관광사업 연구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더불어 지역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용역 과제명은 ‘마산국화축제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이며, 소요 정책개발비는 1,980만원입니다.

창원시는 국화재배의 역사가 담긴 곳으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마산국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국화소비 촉진을 위해 2000년부터 마산국화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시대적 변화와 국내외 축제 트렌드에 맞추어 국화축제를 재조명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산국화축제를 연계하여 축제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창원시의 관광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정책용역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정책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를 대표하여 전홍표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위원 전홍표 반갑습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전홍표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명은 ‘창원시 저탄소 관광지 발굴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소요 정책개발비는 1,980만원입니다.

최근 탄소중립이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탄소 생태관광도 크게 각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태관광이란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며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점점의 관광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부도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26개의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선도 도시, 저탄소·탄소중립 선제적 대응을 주도하는 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저탄소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삼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정책연구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각 연구단체 대표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우리 관광·마케팅 용역서에 보시면 농어촌 체험관광이라 해서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4인이나 5인 이상 이렇게 된다면.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 대표위원 권성현 구점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험형으로 저희들이 할 때 코로나가 간다고 보고 용역을 했는데 이게 북면, 대산면 같은 데에 농산물 수확 체험하고, 논농사 체험하고, 먹거리 체험, 단감파이, 단감껍제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애초에는 코로나가 거의 끝날 거라 이리 생각하고 이거를 책정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생각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

차후에 또 이런 부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우리가 인터넷의 동영상을 통해서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이 용역과제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그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대표님 세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큰 예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자료수집 하는데 출장예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특히 도시발전연구회 김경수 대표위원님 같은 경우는 수원이라든지 타 지역까지 시간 내서 좋은 과제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창원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잠깐 이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과제에 정책 과제명에, 앞으로 책자를 만들 때에는 페이지가 좀 들어가 있으면 서로 보기가 좋는데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정책 과제명에 보면 ‘창원시의 도시 발전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의’가 빠져 있어요.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대표님.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위원 김경수 김상찬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저는, 뒤에 있는 것은 창원시 정주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창원시의 도시

발전방안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갈등해소 완화가 필요성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큰 갈등 2~3개만 이야기한다면 어떤 게 있었지요?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위원 김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통합한지 10년이 됐습니다. 통합한지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 간에 마산, 창원, 진해가 서로 우리 마산, 우리 창원, 우리 진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의원들 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 쟁기기 또 우리지역에 예산을 많이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이 없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김상찬 위원 예, 사실은 본위원도 100%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안에 정말로 완화·해소되어서 앞으로는, 다음에 시작할 때 4대가 시작되면 그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좀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위원 김경수 예,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도시발전연구회에서 이렇게 연구과제를 잡은 것이 통합10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는 방향에서 지역적으로 갈등이라든지 또 어찌 보면 창원은 벌써 대동제를 했지만 마산 같은 이런, 동이 여러 가지 인구가 적으면서 적은 동으로 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연구방향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이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순 위원 대표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용역업체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위원 김경수 용역업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순 위원 좀 전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지금 우리 김경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제1과업에 보면 마산, 창원, 진해 통합1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균형 발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우리 구 창원을 보면 전부 대동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 같은 데 보면 동만 많고, 지금 대동제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형평성이 많이 안 맞다고 봐요. 지금 행정구역 때문에 이야기도 많은데 행정구역을 논하면 우리 의창구하고 성산구 행정구역을 원한다면 그렇게 되게끔 마산, 진해도 대동제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도시발전연구회에서 정말로 용역업체를, 제대로 된 용역업체를 해서 그런 부분부터 수정해 나가는 게, 개선해 나가는 게 도시발전에 관한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게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위원 김경수 우리 이현순 위원님 정말로 가슴에 와 닿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 전에 한 6만 5천명 되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산은 보면 9천, 8천도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번 연구과제를 대동제로 갔을 때에 인구가 많은 동은 어떻고, 인구가 적은 동은 어떤 그게 있을까 있어서 이렇게 제가 직접 이번에 대동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과제를 줘보자 우리 도시발전연구회에서 그런 생각으로 주었거든요.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도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과제를 중점적으로 그렇게 한번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대학교수라든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순 위원 우리 창원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동제는 꼭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신경 쓰셔서 재임하시는 동안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위원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대표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 차이가 역수로 많네요?

도시발전 900 얼마이고, 관광축제 500 얼마고, 그런데 기후위기 여기는 1,400 정도 되는데 이 차이가 특별하게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위원 김경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이 한번 설명 드리세요. 담당 계장.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회담당관 최진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과제별로 특성도 있고, 그 다음 조사범위, 또 연구원의 참여율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참여율이 시간적으로 이 과제는 얼마만큼 참여하느냐 시간계산 이런 것 때문에 차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기본 자료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 궁금하시니까 부탁드립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대표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후위기·그린뉴딜 대표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 좋은 내용이 많은데 저탄소 관광지를 개발하고,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도출하고, 그나저나 저탄소 관광지 발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개념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위원 전홍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적으로 관광산업이라고 하면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칭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 자체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숙박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곳이 관광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라는 내용입니다.

관광산업이라 해서 좋은 경치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경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지역 같은 경우 진해루 앞에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이 있습니다.

그 또한 관광자원이고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솔라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것을 환경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남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남저수지도 교육적인 측면과 생태관광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오는 물건들을 특산품으로 하면 우리가 관광지 가면 기념품 사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생태관광지 개념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게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생태관광지라할 때 과연 어떤 입지에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교통편은 어떻게 선정해서 가야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생태관광이라고 하면 우리 시티투어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하면 다른 차말고 진해루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경제 그 지역의 특산품, 기념품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있는 거에 참여했던 생태관광객들이 그쪽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에서 한 끼의 요기와 식사를 하고 오고, 이렇게 하면 순환경제 저탄소 녹색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 정책으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 또한, 자연사박물관이라 하면 자연에서 교육적인 효과를 얻는 곳이 자연사박물관입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뼈대, 우리가 훼손시키지 않고 학습적이나 관광적인 자원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 과제입니다.

이상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저탄소 관광지 개념하고는 많이 다른 사항인데 하여튼 좋은 설명 고맙고, 그

리고 여기 취지대로 저탄소 관광지 발굴이 잘 되어서 보다 나은 저탄소 관광지가 창원시에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태관광 활성화 도출 방안으로 해 가지고 혹시 현재 창원시에서 생태하천을 조성했거나 그리고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위원 전홍표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현재 창원시가 생태,

○심영석 위원 하천을 지금 조성을, 기존에 해 놓은 곳도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인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범위까지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위원 전홍표 생태관광지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게 과연 하천구역에서부터 생태관광지로 해야 될지 그리고 창원시의 특성상 하천의 유지보수 개념이 있습니다.

치수, 물을 다스리는 쪽에 하느냐 물을 이용하는 친수공간을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우리 구 도심지역에 창원시는 치수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영역에 관광자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뭔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언어도 돌아오고 있지만 이것은 관광자원으로 사람이 들어가지는 않아야 될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하천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갯벌, 주남저수지, 그다음 솔라타워, 어류체험관, 내수면연구소 그 다음에 진해 치유의 숲 이런 곳을 좀 더 저탄소 녹색관광지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하천은 좀 더 지켜주고 보존해야 될 그런, 우리가 들어가서 관광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는가 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도 기후 위기대표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 제목만 봤을 때에는 창원시 저탄소 관광지 발굴했을 때에는 이걸 라다크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관광지에 어떻게 하면 저탄소,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 그런 말씀이지않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잘 연구를 하실 때 그걸 실현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제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50년 탄소제로를 탄소중립 탄소제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030년까지 저탄소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후 정책연구회에서 어떻게 관광까지를 했나 했는데 대표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용역을 주실 때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요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위원 전홍표 전반적인 제안사항 같은데 그 제안했던 사항을 수용해서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제로로 가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분야, 관광분야, 건축, 건설 그리고 교통수단까지 우리 전 정책에 기후위기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파트가 지금 말한 저탄소 관광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쪽에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산업, 경제, 환경 모든 전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창원시가 관광정책도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그 개념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책제안이 나오면 예산반영이 되어서 실천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구점득 김상찬 김상현 심영석

이종화 이현순 정길상 조영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3인)

권성현 김경수 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의회담당관 최진호